

맑고 향기롭게 의료비 지원 사업



지난해 어려운 형편으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웃을 도와달라는 뜻으로 박현숙 회원님이 2,000만 원을 후원하여, 본 모임은 '극빈자 의료비 및 주거 시설 보완비' 1,000만 원을 보태어 총 3,000만 원의 예산으로 11명의 대상자를 공모 선정하여 의료비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의료비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주변에 많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과적 이란 평가를 하여, 2013년에도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계속해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 지원이라는 보람과 자부심을 맑고 향기롭게 회원 및 일반 시민과 공유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어려운 형편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의 재활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오니 회원과 사회복지사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 **지원대상**: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 **지원내용**: 수술비, 간병비, 의약비 등을 포함한 병원 치료비 (최대 2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2013. 7. 1 ~ 2013. 7. 31
- **선정발표**: 2013. 8. 9(금)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각 1부
 - ②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첨부 (해당자의 경우)
 - ③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전월세계약서, 지방과세증명서, 부채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등 재산관련서류를 추가 제출
 - ④ 지원 후 병원으로부터 영수증 증빙
- **신청방법**: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① 이메일(clean94@hanmail.net), 우편, 방문 접수
 - ② 추천 자격: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회원 및 각 사회복지기관 실무자(사회복지사)
 - 자세한 사항은 본모임 홈페이지 참조 및 전화 문의해주세요.
 - (사)맑고 향기롭게 www.clean94.or.kr ☎ 02.741~4696

마음 · 세상 · 자연

맑고 향기롭게

2013. 7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





삶이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행운이자 기적입니다.

-법정-

표지 사진: 회원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나 혼
지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양보하며 삽시
다.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꽃 한 포
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덜 쓰고 덜 버립니다.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3 / 7

다시 읽는 산방한담	4	영혼의 모음 - 어린 왕자에게 보내는 편지
처음 마음으로	10	지금 이 순간 깨어있음이 불성(佛性)이다.
참교육 이야기	16	교육은 없고 암기만 시키는 역사교육, 왜?
차내음가득한시간	20	홍차 이야기 - 2
천진난만	23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	24	아름다운 마무리
참 좋은 문화 길라잡이	26	당신의 가족은 어떻게 삽니까?
가슴이 따뜻한 기업들	30	약속은 약속이다 - 인도 대표 그룹 타타
향기나는 우체통	36	마음속에 남아있는 작은 친절
스님에게 전하는 이야기	38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 중앙모임	39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 지역모임	44	중앙, 대구, 경남, 부산, 광주, 대전모임
길상사 소식	46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3년 7월 1일 발행 / 통권 221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길상사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
인쇄인·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051)898-2672~3 / 대전모임: (042)823-0770 / 경남모임: (055)266-0710 /
광주모임: (062)236-3129 / 대구모임: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E-mail: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kilsangsa@hanmail.net

영혼의 모습

- 어린 왕자에게 보내는 편지

글 • 법 정(法 頂)

1

어린 왕자!

지금 밖에는 가랑잎 구르는 소리가 들린다. 창호에 번지는 하오의 햇살이 지극히 선하다.

이런 시각에 나는 티 없이 밝은 네 목소리를 듣는다. 구슬 같은 눈매를 본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해 지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그 눈매를 그린다. 이런 메아리가 들려온다.

“나하고 친하자, 나는 외롭다.”

“나는 외롭다…… 나는 외롭다…… 나는 외롭다…….”

어린 왕자!

이제 너는 내게서 무연한 남이 아니다. 한 지붕 아래 사는 낮익은 식구다. 지금까지 너를 스무 번도 더 읽은 나는

이제 새삼스레 글자를 읽을 필요도 없어졌다. 책장을 훌훌 넘기기만 해도 네 세계를 넘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행간에 썩어진 사연까지도, 여백에 스며있는 목소리까지도 죄다 읽고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몇 해 전, 그러니까 1965년 5월, 너와 마주친 것은 하나의 해후였다. 너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관계의 바탕을 인식할 수 있었고, 세계와 나의 촌수를 헤아리게 되었다.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사물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나 자신과 마주친 것이다.

그때부터 나의 가난한 서가에는 너의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애들은 메마른 나의 가지에 푸른

수액을 돌게 했다. 솔바람 소리처럼 무심한 세계로 나를 이끌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곧 나의 존재임을 투명하게 깨우쳐주었다. 더러는 그저 괜히 창문을 열 때가 있다. 밤하늘을 쳐다보며 귀를 기울인다. 방울처럼 울러울 네 웃음소리를 듣기 위해. 그리고 혼자서 웃음을 머금는다. 이런 나를 곁에서 이상히 여긴다면, 네가 가르쳐준 대로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별들을 보고 있으면 난 언제든지 웃음이 나네…….”

2

어린왕자!

너의 아저씨(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로사귄 동무 이야기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도무지 묻지 않는다. 그분들은 ‘그 동무의 목소리가 어때냐? 무슨 장난을 제일 좋아하느냐? 나비 같은 걸 채집하느냐?’ 이렇게 묻는 일은 절대로 없다. ‘나이가 몇이냐? 몸무게가 얼

마나 나가느냐? 그 애 아버지가 얼마나 버느냐?, 이것이 그분들의 묻는 말이다. 그제야 그 동무를 아는 줄로 생각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틀에는 제라늄이 피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놀고 있는 아름다운 붉은 벽돌집을 보았다.’고 말하면, 그분들은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내질 못한다. ‘1억 원짜리 집을 보았어.’라고 해야 한다. 그러면 ‘거 참 굉장하구나!’하고 감탄한다.”

지금 우리 둘레에서는 숫자 놀음이 한창이다. 두 차례 선거를 치르고 나더니 물가가 뛰어 오르고, 수출고가 예상보다 처지고, 국민소득이 어떻다는 등. 그러니까 잘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숫자의 단위가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 숫자에 최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숫자가 늘어나면 으스스대고, 줄어들면 마구 화를 낸다. 말하자면 자기 목숨의 심지가 얼마쯤 남았는지는 무관심하면서, 눈에 보이는 숫자에만 매달려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가시적인 숫자의 놀음

으로 해서 비가시적인 인간의 영역이 날로 위축되고 메말라 간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도 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들고 뱀이 마시면 독을 만든다는 비유가 있지만, 숫자를 다루는 그 당사자의 인간적인 바탕이 문제다. 그런데 흔히 내로라하는 어른들은 인간의 대지를 떠나 동등 걸들면 서도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어린왕자!

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버섯”이라고 했었지?

“……그는 꽃향기를 맡아본 일도 없고 별을 바라본 일도 없고, 누구를 사랑해본 일도 없다. 더하기밖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그러면서도 온종일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하고 뉘고만 있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잔뜩 교만을 부리고 있어. 그렇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야!”

그래, 네가 여우한테서 얻어들은 비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한 모

서리에 불과해. 보다 크고 넓은 것은 마음으로 느껴야지. 그런데 어른들은 어디 그래? 눈앞에 나타나야만 보인다고 하거든. 정말 눈뜬장님들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꿰뚫어볼 수 있는 그슬기가 현대인에겐 이롭다는 말이다.

3

어린왕자!

너는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꽃인 줄 알았다가, 그 꽃과 같은 많은 장미를 보고 실망한 나머지 풀밭에 엎드려 울었었지? 그때에 여우가 나타나 ‘길들인다’는 말을 가르쳐 주었어. 그건 너무 잊혀진 말이라고 하면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라고.

길들이기 전에는 서로가 아직은 몇 천 몇만의 흔해빠진 비슷한 존재에 불과하여 어렵거나 그림지도 않지만, 일단 길을 들이게 되면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야.

“……네가 나를 길들이면 내 생활은 해가 돋는 것처럼 환해질 거야. 난 어느

발소리하고도 다른 발소리를 알게 될 거야. 네 발자국 소리는 음악이 되어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여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밀밭이 어린 왕자의 머리가 금빛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황금빛이 감도는 밀을 보면 그리워지고 밀밭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좋아질 거라고 했다.

그토록 절절한 관계가 오늘의 인간 세계에서는 퇴색해버렸어. 서로를 이해와 타산으로 이용하려 들거든. 정말 각박한 세상이다. 나와 너의 관계가 없어지고 만 거야. ‘나’는 나이고 ‘너’는 너로 끊어지고 말았어. 이와 같이 뿔뿔이 흩어져버렸기 때문에 나와 너는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인간관계가 회복되려면, ‘나’, ‘너’ 사이에 ‘와’가 개재되어야 해. 그래야만 ‘우리가’ 될 수 있어. 다시 네 동무인 여우의 목소리를 들어볼까.

“……사람들은 이제 무얼 알 시간조차 없어지고 말았어. 다 만들어놓은 물건을 가게에서 사면 되니까. 하지만 친구를 팔아주는 장사꾼이란 없으므로 사람들은 친구가 없게 됐단다. 친구가 갖

고 싶거든 날 길들여!”

길들인다는 뜻을 알아차린 어린 왕자 너는 네가 그 장미꽃을 위해 보낸 시간 때문에 네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게 된 것임을 알고 이렇게 말한다.

“……내 장미꽃 하나만으로 수천 수만의 장미꽃을 당하고도 남아. 그건 내가 물을 준 꽃이니까. 내가 고깔을 씌워 주고 병풍으로 바람을 막아준 꽃이니까. 내가 벌레를 잡아준 것이 그 장미꽃이었으니까. 그리고 원망하는 소리나 자랑하는 말이나 혹은 점잖게 있는 것까지라도 다 들어준 것이 그 꽃이었으니까. 그건 내 장미꽃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라고 했다.

“……너는 내 장미꽃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4

너는 이런 말도 했지.

“……사람들은 특급열차를 집어타지 만, 무얼 찾아가는지를 몰라.”

그렇다. 현대인은 바쁘게 살고 있다. 시간에 쫓기고 일에 밀리고 돈에 추격당하면서 정신없이 산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피로회복제를 마시며 그저 바쁘게만 뛰어다니려고 한다. 전혀 길들일 줄을 모른다. 그래서 한 정원에 몇 천 그루의 꽃을 가꾸면서도 자기네들이 찾은 길 거기서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것은 단 한 송이의 꽃이나 한 모금의 물에서도 얻어질 수 있는 것인데.

너는 또 이렇게 말했지.

“……그저 아이들만이 자기네들이 찾는 게 무언지를 알고 있어. 아이들은 형묘로 만든 인형 하나 때문에도 시간을 허비하고, 그래서 그 인형이 아주 중요한 것이 돼버려. 그러니까 누가 그 걸 뺏으면 우는 거야…….”

어린 왕자!

너는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구나. 이 육신을 묵은 허물로 비유하면서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더구나. 삶은 한 조각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음은 한 조각구름이 스러지는 것

이라고 여기고 있더라. <생아일편부운기(生也一片浮雲起) 사아일편부운멸(死也一片浮雲滅)>

그렇다, 이 우주의 근원을 넘나드는 사람에겐 죽음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도 삶의 한 과정이니까.

어린 왕자, 너의 실체는 그 묵은 허물 같은 것이 아닐 거야. 그건 낡은 옷이니까. 옷이 낡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우리들의 육신도 그럴 거다. 그리고 네가 살던 별나라로 돌아가려면 사실 그 몸뚱이를 가지고 가기에는 거주장스러울 거다.

“……그건 내버린 묵은 허물 같은 거야. 묵은 허물, 그건 슬프지 않아. 이봐 아저씨, 그건 아득할 거야. 나도 별들을 쳐다볼래. 모든 별들이 녹슨 도르래 달린 우물이 될 거야. 모든 별들이 내게 물을 마시게 해줄 거야…….”

5

어린 왕자!

이제는 너를 길들인 후 내 둘레에 얽힌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어린왕자》라는 책을 처음으로 내게 소개해준 벗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한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벗이다. 너를 대할 때마다 거듭거듭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벗은 나에게 하나의 운명 같은 것을 만나게 해주었으니까.

지금까지 읽은 책도 적지 않지만, 너에게서처럼 커다란 감동을 받은 책은 많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의 경전이라고 한대도 조금도 과장이 아닐 것 같다. 누가 나더러 지묵(紙墨)으로 된 한 두 권의 책을 선택하라면 《화엄경華嚴經》과 함께 선택 너를 고르겠다.

가까운 친지들에게 《어린왕자》를 아마 서른 권도 넘게 사주었을 것이다. 너를 읽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내 신뢰감과 친화력을 느끼게 된다. 설사 그가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를 이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내 벗이 될 수 있어. 내가 아는 프랑스 신부 한 사람과 뉴질랜드 노처녀 하나는 너로 해서 가까워진 외국인이다.

너를 읽고도 별 감흥이 없어 하는 사

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나와 치수가 잘 맞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다. 어떤 사람이 나와 친해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너를 읽고 난 그 반응으로 능히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너는 사람의 폭을 재는 한 개의 자다. 적어도 내게는. 그리고 네 목소리를 들을 때 나는 누워서 들어. 그래야 네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야.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고 날아다닐 수 있는 거야. 네 목소리는 들을수록 새롭기만 해. 그건 영원한 영혼의 모음(母音)이야.

아, 이토록 네가 나를 흔들고 있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건 네 영혼이 너무도 아름답고 착하고 조금은 슬프기 때문이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샘물이 고여 있어서 그렇듯이.

네 소중한 장미와 고삐가 없는 양에게 안부를 전해다오.

너는 항시 나와 함께 있다. 안녕. 1971

-영혼의 모음 중에서

지금 이 순간 깨어있음이 불성(佛性)이다.

글 • 덕운(德耘)

양나라 무제(武帝) 때 부대사(傅大士, 497년~569년)가 말씀하셨습니다.

夜夜抱佛眠 (야야포불면)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 朝朝還共起 (조조환공기) 아침마다 다시 같이 일어난다. / 起坐鎮常隨 (기좌진상수) 서나 앉으나 항상 서로 따르고 / 語默同居止 (어묵동거지) 말할 때나 잠잠하거나 같이 있다. / 纖毫不相離 (섬호불상리) 털끝만큼도 여의지 않아서 / 如身影相似 (여신영상사) 몸과 그림자가 서로 따르는 것과 같으니 / 欲識佛去處 (욕식불거처) 부처 간 곳을 알고자 하는가? / 只這語聲是 (지저어성시) 이 말소리가 바로 그것이니라.

우리는 모두가 그대로 불성(佛性)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불성이 어디에서 작용합니까? 여러분의 육근문두(六根門頭)에서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지전능한 존재로서 마음밖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항상 쓰고 있는 마음 자체가 그대로 부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 자체가 부처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실을 믿질 않습니다. 우리가 부처를 찾는다, 본래 주인공을 찾는다고 하니까 이 현실을 떠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무엇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은 듣고 대답합니다.

무엇이 듣고 무엇이 대답하였습니까? 듣고 대답하는 거기에 부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알지 마십시오.

“아! 알았다. 그렇구나.” 하는 순간 틀리게 돼 버립니다.

옛 조사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육근문두(六根門頭)에서 훑훑 다 벗어나 버리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깨끗한 본래 부처가 드러나 있다. 그것을 보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바로 보아버리면 되는 것인데, 경전을 보고, 조사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기도하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귀로 듣고 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보고 무엇이 듣습니까? 이 보고 듣는 것을 떠나서 따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스님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道)는 어디 딴 곳에서 찾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밥 먹고 일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찾으라. 그

러나 도(道)는 일상생활 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요, 또한 이것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바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옛날 조사스님들께서 처음 화두를 제시하실 때는 우리가 언하(言下)에 바로 깨달으라고 제시해주신 것입니다. 그 말 아래 바로 깨달으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하여 돌아가서 참구하여 깨달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가운데 육조스님의 제자인 남악 회양 선사는 육조스님을 참배하러 왔다가 육조스님께서 ‘무슨 물건(物件)이 이렇게 왔는가?’라는 물음에 앞이 캄캄하여 아무 말씀도 못하셨습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회양 선사는 삼장을 두루 통달하여 경전에 많이 해박하셨지만, 육조스님의 질문에 입도 병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8년을 한결같이 참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조사스님들이 일러주신 화두를 즉시 깨닫지

못하니깐 간화선(看話禪)이라는 방법, 즉 화두(話頭)로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육조스님께서 무슨 물건이라고 물으셨지만, 이것을 물건이라고 한다면 10만 8천 리로 떨어진 것이요, 물건이 아니라 해도 또한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도리(道理)이기에 그러할까요?

여기 이 문제에 막혀서 '이 뭣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순간에도 보고 듣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두를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 활구(活句)가 되기도 하고 사구(死句)가 되기도 합니다. 화두를 할 때는 바로 내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먼 옛날에 스승과 제자의 문답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의심하면 사구(死句)가 되어 버립니다. 조사스님이 일러 놓은 화두를 들어 참구하되 이것이 바로 내 문제로 돌아와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활구(活句)인 것입니다. 공부할 때는 간절한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화두를 의심할 때 알고자 하는 궁금증

이 사무쳐 간절히 들어가야만 정신이 하나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하나로 집중해서 선정에 깊이 들어가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분별망상이 없어지는 경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야 하고, 그 하나로 집중하는 데는 의심이 최고이기 때문에 화두(話頭)를 들 때는 간절히 의심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초기 교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깊게 관찰해서 자아(自我)가 있다고 그런 관념을 짓지 마라.”

이 말씀은 '나'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마음도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각도 감각도 내 것이 아니고, 의식도 내 것이 아니니 버리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십이연기(十二緣起)에서 무명(無明)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음, 무지(無智)인데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자체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무명이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는 관념에 묶여있는, 나에게 집착하는 병이 무명인 것입니다. 일체 중생고(衆生苦)가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버려라, 버려라, 버리는 것이 너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허망한 오온을 붙잡고, '나'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인줄 알고 집착해서 천년만년 살 것으로 생각하고 재물과 명예 등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알고 이 가운데서 행복을 잡아보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를 아시고 '버려야 네가 생사해탈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면 허다한 망상 때문에 내 마음을 뜻대로 고요하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제대로 발심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스님께

서 말씀하시길 '공부 안 된다고 탓하지 말고, 네가 발심 못한 것을 탓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심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무상(無常), 무아(無我)의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나'라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내 것이라고 할 것도 없는 이 이치(理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제대로 된 발심이요, 이것을 아는 것이 도(道)에 들어가는 문(門)입니다. 또 이것을 연기(緣起)로 말씀하셨는데, 무아(無我)이기 때문에 무상(無常)한 것이고, 무상(無常)이기 때문에 무아(無我)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연기(緣起)를 말씀하실 때는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물질 세상도 포함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의식세계, 소위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의식(意識)을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연기(緣起)는 인연(因緣) 따라서 이어가고 새롭게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의식도 내 것이 아니다. 감각, 지각도 모두 내 것이 아니다. 버려라. 나는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금증을 가질 것입니다.

‘내가 없고 내가 없이 행위(行爲)를 한다면 그 행위(行爲)의 결과를 받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가질 만한 의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연법(因緣法)을 이야기할 때 죄지으면 죄값을 받으니, 죄짓지 말고 복 짓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없으면 죄짓는 자는 누구고, 받는 자는 누구인가?’ 짓고 받는 자가 같으나, 다르냐 하는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 ‘행위를 하는 자가 그대로 행위의 결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행위를 하는 자와 받는 자가 둘이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하십니다. 불변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업이 조건에 따라 변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상(無常)입니다. 한결같은 불변성을 갖고 존재한다면 무상(無常)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계속되는 연속성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면서 항상 변해

가고 있는 도리이기 때문에 행위를 하는 자와 행위의 결과를 받는 자가 하나도 아니면서 또한 다른 존재도 아니란 뜻입니다.

〈금강경〉에 보면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연기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흐름 속에 있어서, 특정한 마음을 잡아 ‘이것이 내 마음이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存在)해야 합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선가(禪家)에서 ‘주인공(主人公), 본래면목(本來面目), 참나를 찾으라.’ 하니 어떤 실체가 현실을 떠나 따로 존재(存在)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으려 한다면 천리만리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며,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연기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며, 연기를 이해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고정관

념을 털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부처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발 딛고 있는 이곳을 정토(淨土)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나라는 개인적인 관념에 묶이지 않고, 모든 이를 다 같이 부처님으로 보고 나와 너, 잘나고 못나, 옳고 그름의 분별심에서 벗어나려는 수행(修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달마스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대가 깨어 있을 때 거기에 불성(佛性)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깨어있음이 곧 불성(佛性)이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을 미워하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라. 그대의 모든 생각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 삶 속에서 그대는 열반이 시작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 속에서 어떤 재생도 없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형체에 미혹되지 않고 형체를 보며, 소리에 미혹되지 않고 소리를 듣는 것이 해탈의 상태이다. 형체에 미혹되지 않는 눈이 바로 선(禪)으로 들어가는 문(門)이며, 소리에 집착하지 않는 귀 역시 선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모든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자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달마스님은 ‘깨어있음’이 그대로 불성(佛性)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성(佛性)은 우리의 마음을 떠난 관념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깨어있음이 그대로 불성(佛性)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형체에 미혹되지 않고, 소리에도 미혹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의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는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로, 염불하시는 분은 염불로, 독경하시는 분은 독경으로, 참선하시는 분은 참선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충만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 불기 2557년 5월 초하루 법문
(2013년 6월 9일)

교육은 없고 암기만 시키는 역사교육, 왜?

글 • 김용택(교육 칼럼니스트)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5·16군사정변'을 놓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달,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5·16과 5·18이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대립된 이슈라고 생각하느냐. 5·16은 군사정변이냐, 구국의 혁명이냐"는 질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서장관에 대한 '5.16, 5.18에 대한 정체성 확인'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5·16을 군사정변으로 보느냐, 혁명으로 보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양해를 바란다."고 말해 교육수장으로서는 자질을 의심받기도 했다. 어쩔 수 없이 교과서에 기술한 대로 '5.16은 군사정변이요, 5.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답

변은 했지만 불편한 심기는 그대로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이야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겠지만 우리나라 일부 국민들의 역사인식은 심각한 수준이다.

일베의 막말과동, 조중동의 역사왜곡, 종편의 역사왜곡, 전사모카페 회원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역사왜곡…….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뉴라이트 인사들이 이끄는 한국현대사학회가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교학사)의 검정심의를 통과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일제 강점기는 축복으로,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광주는 북괴군의 개입으로, 5.16은 혁명으로 폄훼하는 뉴라이트의 시각이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

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수구세력의 역사왜곡을 차단할 방법은 없을까?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역사교육은 사건중심의 역사를 시대별로 가르쳐왔다. 사건을 원인과 경과, 결과로 나눠 시대별로 암기하는 게 청소년들의 역사 공부다. 선사시대부터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현대사…로 훑어 내려오면서 건국과정에서부터 통치조직, 관료체제, 문벌귀족, 외교관계, 종교, 문화…에 대한 사건이며 자료를 빠짐없이 가르치고 외웠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가치 있는 사실(史實)을 통해 오늘을 사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지식이란 나와 무관한 역사란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현재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역사교과서에는 우리 역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많이 암기해 좋은 점수를 받는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춰 있다. 제대로 된 역사공부란 어떤 것일까?

첫째, 역사공부는 '나'를 찾는 데서 시

작해야 한다. 내가 알아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역사적 지식이란 무용지물이다. 사실(史實)을 통해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역사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공부란 내가 소외된 역사, 양반중심의 역사, 서울중심의 역사를 배우고 있다. 내가 소외된 그런 역사를 교과서대로, 하나라도 더 많이 외워야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역사공부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의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나를 찾는 작업……. 그것이 역사공부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가족의 역사, 우리 고장의 역사부터 배워야 한다. 내가 빠지고 내가 족, 우리 고장과 무관한 역사에 애정이 나 관심이 있을 리 없다.

내가 실종된 역사,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살살이 공부했지만, 시험이 끝나면 기억에 남는 게 없다면 그런 역사적 지식이란 시험용일 뿐이다. 역사가

암기과목으로 부담을 주는 과목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 민족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역사공부를 다하고서도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을 길러냈다면 그런 역사공부는 실패한 교육이다.

둘째,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은 사관(史觀)부터 가르쳐야 한다.

똑같은 사건을 다른 모습으로 비춘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

1135년에 일어난 '서경천도운동'의 경우, 과거 학생들이 배우던 교과서에는 '서경천도운동'을 '승려 묘청 등이 금국정벌론과 서경천도론이 개경 귀족들의 방해로 무산되자 서경(西京)에서 국호를 대위(大爲), 연호를 천개(天開), 군호(軍號)를 천견충의군(天遣忠義軍)이라 하여 대위국(大爲國)을 선언하고 일으킨 반란이다.'라고 기록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의 독립 운동가이자 민족주의 사학의 선구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은 '서경천도운동'을 두고 '조선역사상 1천 년 내 제1대 사건'이라

했다.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의 실상은 '낭가(郎家)와 불교 양가 대 유교의 싸움이며, 진취 사상 대 보수 사상의 싸움이니, 묘청은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묘청이 패하고 김부식이 이겼으므로 조선사가 시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인 유교 사상에 정복되고 말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왜 똑같은 사건이 하나는 '난(亂)'으로 또 하나는 '1천년내 일대사건'으로 달리 보게 되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역사를 어떤 안경으로 보는가 하는 사관(史觀)의 차이이다. 같은 물이라도 그것을 담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보이듯 역사도 마찬가지다. 우리 역사에는 수많은 민중의 봉기가 있었다. 양반들이 기록한 역사는 민중의 봉기를 난(亂)으로 기록한다. 봉기가 난으로 기록된 역사는 양반중심의 사관에 의한 기록이요, 민초들이 일으킨 난(亂)일 뿐이지만 민중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민초들의 권리 찾기요, 민중들이 삶을 이어나가기 위한 생존투쟁이다.

사관(史觀)이란 역사를 해석하는 기준이다. 서경으로 서울을 옮기는 일 하나를 두고 한쪽에서는 '난'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1천 년내 일대사건'으로 보는 차이만큼이나 다르게 보이는 게 사관(史觀)이다. 이렇게 역사란 황국신민화라는 식민사관도 있고 왕이나 귀족이 역사창조의 주인이라는 왕조사관도 있다. 민중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보는 민중사관도 있고 민족주의사관, 유물사관 불교사관, 기독교사관 등 다양하다.

실제로 우리역사에 임금님의 역사, 양반의 역사는 있지만 서민의 역사, 민초들의 역사는 없다. 서울의 역사는 있어도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사는 없다. 왕의 생각, 양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만드는 역사란 나를 위한 역사 공부라 아니라 이데올로기로서의 역사일 뿐이다.

골품제의 경우를 보자. 골품제란 '공복(公服)의 빛깔, 착용할 수 있는 옷감의 종류, 관(冠)의 재질, 요대(腰帶) 및 신발의 재질, 수레에 사용하는 장식품

의 종류, 일상생활의 용기까지도 골품에 따라 차등 있게 구분하였다는 것까지 자세하게 배운다. 그러나 내 부모의 역사 우리 고장의 역사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더구나 우리가 살고 또 앞으로 살아갈 사회는 계급 없는 평등사회인지 부모의 경제력으로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과거의 사실(史實)을 통해 오늘의 현실을 해석해 내는 일. 그것은 제대로 된 사관을 배울 때 가능한 얘기다. 서경천도운동을 배우면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가르치지 못하고 골품제를 가르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사회 양극화를 연계해서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런 역사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 역사를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실(事實)로 파지(把持)의 대상이라면 그런 지식이란 시험 점수를 높게 받을 때나 필요할 뿐이다.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사관 없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교육은 이제 그쳐야 한다.

홍차 이야기 - 2

글 • 문정숙

투명한 유리잔에 얼음을 띄워 마시는 한 잔의 아이스티는 심신의 피로를 산뜻하게 날려준다. 아이스티를 만들 적에 물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면 타닌과 카페인이 만나 탁해지기 쉬운데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얼음이 충분히 담긴 잔에 2배 정도 진하게 우린 뜨거운 홍차를 부어 재빨리 식히면 된다. 그리고 어린이나 카페인에 예민한 이들은 찻잎을 30초간 우린 후 첫 탕은 버리고 재탕을 사용하면 좋다. 카페인은 뜨거운 물속에서 30초 안에 물에 녹아나오기 때문이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철에는 언제든지 즉시 간편하게 바로 마실 수 있는 아이스티를 마련해두는 것도 좋다. 생수가 든 페트병에 찻잎을 넣고 가볍게

흔들어주고 한번 뒤집어서 냉장고에 넣고 하룻밤 정도 우려 찻잎을 걸러낸 후에 냉장 보관하여 마시면 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우린 차는 카페인과 타닌이 덜 우려나므로 부담 없이 수시로 마실 수 있다.

4. 홍차의 분류

홍차는 생산지, 채취시기, 제다과정, 찻잎의 배합 및 첨가 재료 등에 따라 분류 기준 방법이 다양하다.

1) 차를 우리는 방식에 따라 스트레이트 티(Straight tea)와 베리에이션 티(Variation tea)로 나눈다.

- 스트레이트 티는 가장 정통적인 방식에 따라 찻잎 이외에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는

홍차를 뜻하며 취향에 따라서 약간의 설탕을 가미할 수도 있다.

- 베리에이션 티는 홍차 제다 공정 중 첨가 재료를 넣어 만든 차이거나 차를 우리는 과정에서 우유, 과일, 허브 등을 첨가해서 다양하게 변형해 즐기는 홍차를 일컫는다.

2) 찻잎의 배합에 따라 다원차(Single Estate tea)와 배합차(Blended tea), 가향차(Flavory tea)로 분류하기도 한다.

- 다원차는 동일한 시기에 한 다원이나 같은 재배지에서 생산해 만든 차로 시즌별, 산지별, 특징적인 맛과 향을 그대로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고가의 고급차로 '오리지널티'로 부르며 향기가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 배합차는 생산지, 시즌별, 서로 다른 다원에서 생산된 차들을 둘 이상 배합하여 제품화한 차이다. 잉글리쉬 블랙퍼스트, 립톤 티백 등이 있으며, 잉글리쉬 블랙퍼스트는 아쌈과 실론티를 섞어 만든 차로 고유명사로 자리 잡은 경우에 속한다.

- 가향차는 제다 과정에서 천연향신

료나 과일, 꽃잎 등을 첨가해서 만든 차로 얼그레이, 애플티, 민트티, 진저티, 로즈티 등이 있다. 특히 가향차를 대표하는 '얼그레이'는 기문이나 우바, 아쌈 등에 베르가모트 향을 입힌 것으로, 영국의 26대 수상이었던 찰스 그레이(1696-1782)의 이름에 백작의 칭호인 얼(Earl)을 붙여 만든 이름이다.

5. 신비한 동양의 음료

요즘 변화가는 물론 동네 골목에도 카페가 무척 많은데 커피와 더불어 차가 준비되어있지만, 홍차는 대부분 티백인 경우가 많다. 전 세계 차 생산량의 80%가 홍차이며 그 홍차의 60%를 소비하는 홍차의 왕국, 영국에서도 간편한 티백이 유행하다가 몇 년 전부터 웰빙 바람이 불어 다시 잎 차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한다.

동양의 특산물인 차가 어떤 경로를 통해 영국에 전해지고 국민적 음료로 정착하게 되었을까?

유럽인의 서적에서 차에 대한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들이 해

로를 통해 동양에 진출한 이후이다. 오늘날 차를 의미하는 세계 각국의 단어를 살펴보면 중국 광둥어(廣東語)인 '차'와 푸젠어(福建語)인 '테'의 계보를 따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육로를 통해 차가 전해진 나라는 '차'의 발음을, 해로를 차가 도입된 나라는 대부분 '테'로 발음한다. 따라서 푸젠성의 샤먼(廈門)과 직접 무역을 시작하여 유럽 각국으로 차를 확산시킨 해양국가·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은 유럽 대부분은 푸젠어의 계보에 연계되어있다. 예외로 광둥성의 마카오를 직접 통치했던 포르투갈 같은 '차'라고 발음한다.

한편 영국은 17C 중반까지는 지금처럼 푸젠어계의 '티'라 하지 아니하고 '차'로 표기하고 발음하다가, 크롬웰(1599-1658)의 항해조례(1651)를 시작으로 3회에 걸친 네덜란드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시아 무역의 지배권을 장악함에 따라 영국 상인이 중국 푸젠성의 해안도시인 샤먼에 자리를 잡은 후부터 차의 발음은 cha → toe → tea로 점차 변해 오늘에 이르렀다.

당시에 차는 무척 귀한 고가품이었으며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좋은 동양의 영험한 약으로 영국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1657년경부터는 일반인에게도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약으로 인식되었던 차가 음료로서 홍차문화를 꽃피우게 된 것은 1662년 포르투갈 공주인 캐서린(1638-1705)이 찰스 2세(재위 1660-85)와 결혼하면서 동양의 음다 풍속을 궁중에 들여온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궁정에서는 알코올음료가 성행하였는데 차 애호가인 캐서린의 영향으로 동양의 차와 예절이 유행하게 되고 궁정의 분위기가 격상됨에 시인 애드먼드는 여왕에게 「비너스가 몸에 휘감은 망토, 아폴로가 쓴 월계관, 그 어느 것보다도 차는 멋있네. 여왕이 차를 사랑하시어 하사하셨다네.」라는 시를 지어 헌상하기도 하였다.

붉고 투명한 빛깔의 신비로운 음료는 순식간에 영국 귀족들을 사로잡았고 상류층의 문화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계속)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청봉(淸逢)



아름다운 마무리 7월의 결연 대상자 - 김태일 어르신

‘병원 갔다 지금 왔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다. 약을 2주 치 지어 와서 먹으니 더 아프고 쭈시고 앉을 수도 없고 약을 먹어도 안 낫는다. 척추에 끼인 것이 있어 사진 찍어보고 수술로 제거해야 한다고 한다. 사진 찍는데 60만 원, 수술 하는데 60만 원 든다고 해서, 유치원 일하는 딸에게 전화했는데 손녀가 병원에 있다고 한다. 손녀 눈동자가 양 옆으로 있어서 수술해야 하는데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 끊었다.’

저희 모임 전화맡벌 자원봉사자가 김태일(가명) 어르신과 어느 날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행에 이상이 없었던 김태일 어르신(83세)은 지금은

온종일 방안에만 계십니다. 척추 질환으로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반듯이 눕지도 못해서 주무실 때는 옆으로 돌아누워 잠을 자야 합니다. 수술 시기는 이미 놓쳤고 수술 효과도 50%만 기대할 수 있어서 수술에 대해서도 마음을 접고 말았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 김태일 어르신은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럽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일정한 생계급여와 의료보호가 제공되지만, 김태일 어르신은 자식이 있어서 수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2남 2녀의 자녀를 둔 김태일 어르신. 장남은 사업하다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자녀 학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작은딸은 큰아이가 백혈병이라 전세금

을 다 까먹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김태일 어르신은 딸은 출가외인이라 제쳐놓을지언정 아들자식의 봉양을 기대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그러나 서구와 같은 사회복지제도는 정착되지 않았는데 핵가족이라는 사회 변화에 직격탄을 맞으셨습니다. 부정맥, 고혈압, 만성 신부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김태일 어르신은 외로움과 가난, 노환, 무위를 온몸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어르신은 자신의 병환을 알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난 어버이날은 자식들로부터 걸려오는 안부 전화 한 통화 없이 혼자 보내야 했고, 생일은 인근 실버복

지센터에서 작게나마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1,000만 원짜리 전세방에 살고 계셔서 월세 부담이 없는 것이 다행입니다.

김태일 어르신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어린이대공원에 한번 가보고 싶은 것입니다. 서울 광진구 능동에 소재한 어린이대공원은 오래전 어르신이 어린 자녀와 어여쁜 아내의 손을 맞잡고 가족 나들이를 갔었던 추억이 간직된 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근 실버복지센터를 전에는 10분 만에 다녔지만, 이제는 1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몸이 허락 하질 않습니다. 5년 주기로 교체하는 보청기도 조만간 다시 사야 하는데(85만 원 정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주로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부문화가 우리 사회의 성장을 측정하는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성금 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맑고 향기롭게
- **거리캠페인 일정**
 - 7월 13일(토) 지하철 2호선 신촌역(현대백화점 연결동로)
 - 7월 28일(일) 길상사 경내

당신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이혜경 소설 <길 위의 집>

글 • 서정민갑(대중음악의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아프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거나 헤어지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프고 괴로우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비단 연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은 우리가 늘 함께 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늘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바로 가족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족은 혈연관계라서 뗄레야 뗄 수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부부가 이혼하고 가족들이 아예 안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운명이다, 숙명이다 여기고 살아갑니다. 부모가 가난하다고 해서, 자식이 못났

다 해서 바꾸려는 가족은 없습니다. 부부는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 자식과 자식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의지하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기를 바라고, 자식들 역시 부모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자신들을 잘 뒷바라지 해주기를 바랍니다. 부모들도 자식들이 자신의 기대만큼 해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기대만큼 충족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서로 해야 할 역할만큼 소통과 배려를 순조롭게 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

모가 되기 전에 부모가 되는 연습을 하고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되기 전에도 자식이 되는 연습을 하고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역할, 한 번도해보지 않은 역할을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제도가 주는 원죄 같은 숙제입니다.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 일은 완전히 초보인 사람이 새로운 공부를 하며 뭔가를 새로 배우듯 배워야 하는 일이고, 하면서도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면서 개선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애써야만 겨우 겨우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그저 평화롭고 따뜻하기만 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서로 실수하고 상처 주고 괴롭히는 일이 더 많은 집단입니다.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길러냄으로써 한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이지만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예술작품들이 가정을 다루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가족 안에서 가장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가족이라는 제도와 과정은 가장 긴 시간동안 가장 인간의 기본이 되는 가장 많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외모와 성격, 양육과 교육 같은 것들이 대부분 가정 안에서 결정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가족에 대해 참 무관심했습니다. 그냥 저절로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식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시절에는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일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부모는 자신과 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먹여 살리는 일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너무 빨리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자식들을 키워내는 일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계를 꾸려 가는데 급급해서 다른 것들은 신경 쓰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자식들과 대화하며 소통하면 좋았겠지만 생활이 불안하고, 돈이 가장 중요해진 환경에

서 자녀 교육은 공부만 강요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의 모델을 본 적이 없으니 이전 세대의 부모들이 그랬듯 그저 자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일에 더 익숙했습니다. 단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맡겨진 책임은 너무 컸고, 주어진 권력은 너무 막강했습니다. 자식들 역시 급변하는 세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 세상에서 부모의 뜻을 순순히 따르는 일도 어려웠고, 자신의 꿈을 펼치는 일도 어렵기만 했습니다.

소설가 이혜경의 작품 <길 위의 집>은 바로 이러한 시절을 살아갔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40대 후반 이상의 세대라면 누구나 겪어왔던 이야기, 바로 자신의 이야기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견작가 이혜경의 초기 작품으로 1995년 오늘의 작가상을 받은 이 작품은 한 가족을 이루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 가족의 의미와 실체, 그리고 우리 사회의 흐름까지 보여주는 좋은

작품입니다. 사업을 통해 자수성가해 든든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의 아버지들이 그러했듯 무척이나 가부장적 인 아버지 길중씨와 묵묵히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윤씨, 그리고 각기 다른 인간형을 보여주는 아들과 딸 효기, 윤기, 인기, 정기, 은용의 모습은 한 명 한 명이 가족이라는 제도의 굴레 아래에서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들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어떤 자식은 그런 아버지에게 순종하지만 또 어떤 자식은 반항하고 또 다른 자식은 자신의 삶을 찾아가습니다. 경제 개발과 도시화, 민주화라는 격변이 스치고 지나가는 동안, 부모가 늙고 자식이 성장하는 동안, 아버지와 자식, 부부의 삶은 소용돌이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혜경 소설 <길 위의 집>

그런데 이 작품이 좋은 것은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관계와 사건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인물들을 보여줄 때 결코 한 사람의 편에 서지 않고 각자 다른 인물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물들의 편에 서서 생각해볼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고 제멋대로 한다고 해도 그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다른 자식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기보다 각자의 다른 상황과 처지, 고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악착같이 살 수밖에 없었고, 권위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자식들 역시 반항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인물들의 상황과 욕망, 좌절과 아픔을 모두 보여줍니다. 이렇게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골고루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그만큼 작가가 균형 감각이 있기 때문이고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사실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도 없고, 절대적으로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눈여겨 볼 부분이 있고, 누구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작가가 모든 인물들을 다 옹호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가는 남성들이 쥐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권위적이고 폭력적인지에 대해서까지 눈감지는 않습니다. 어머니와 딸이라는,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한 두 등장인물은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가장 낮은 위치, 가장 투명한 시선으로 현재의 가족 관계가 남성 권력에 의해 폭력적으로 이어져왔음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의 가족, 그리고 가족 안의 자신에 대해 돌아보게 합니다. 흥미진진하게 소설을 읽고 나면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아니 가족 안에서 당신은 어떠신가요?

약속은 약속이다 인도 대표 그룹 타타

글 • 변택주

자동차 회사 회장이 임원들과 차를 타고 가는데 타이어가 펑크 났다. 운전 기사는 황급히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린 임원들이 담소를 나누다 돌아보니 회장은 차 뒷편에서 잭과 스페너를 손에 쥐고, 타이어를 가는 운전기사를 돕고 있었다.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히고 와이셔츠에 흥건히 땀이 뻗어 있다. 인도를 대표하는 타타 그룹 회장 라탄 나발 타타(Ratan Naval Tata(1937~), 1868년 창업해 한 세기 반이란 긴 역사를 가진 인도 타타 그룹 경영권을 이어받은 라탄 타타는 회장 취임 20여 년 만에 타타 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냈다. 경영권을 잡고 처음 맞은 시련은 친구 경영진 다툼이었다. 라탄 타타는 일흔 다

섯 살이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 세대교체를 이루고, 사회가 주인이라는 기업 윤리를 대내외에 밝혔다.

나노베이션(nanovation)

비가 몹시 내리는 날 라탄 타타를 태운 자동차가 울창한 숲 속을 뚫고 지나가며 우고 곡예라도 하듯 앞서가는 스쿠터 뒤를 따라 교차로에 들어섰을 때, 라탄 타타는 운전기사에게 주의를 준다. “속도를 낮춰요. 비가 오는 날에는 스쿠터가 잘 넘어지니까.” 바로 그때 스쿠터가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쓰러지면서 온 식구가 젖은 길바닥에 나뒹굴었다. 도와주려고 차에서 내리면서 휠

씬 더 나쁜 상황이 닥칠 수 있었음에 몸서리치며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은 라탄 타타는 2004년 “10만 루피(240만원)짜리 국민차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륜차 두 대를 나란히 세우고 지붕만 덧 씌워도 10만 루피는 더 나갈 것’이라고 쭈군대며 이 약속이 지켜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가장 값싼 자동차를 개발하는 일은 가시밭길이었다. 그러나 라탄 타타는 자신도 개발프로젝트 팀원이 되어 직원들을 독려했다.

마침내 2008년 1월 10일 오전 11시 30분, 온 세계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델리 오토 엑스포전시장으로 라탄 타타 회장이 ‘나노’를 몰고 나타났다. 나노 개발이야기로 전시장 분위기가 달아오



라탄 타타 회장과 국민차 나노

를 때 라탄 타타는 “마지막으로 값은”이라며 “우리가 국민차를 만들려고 마음을 내던 네 해 전에 견줘 첩판이나 타이어를 비롯한 자재 값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라고 했다. 전시장이 물의를 끼었은 듯 조용해졌다. 세상 눈길이 타타 회장 입으로 쏠렸다. “그렇지만 값은 10만 루피입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A promise is a promise.”라며 “이 차를 사려고 할 때 품질 때문에 망설이는 일은 없으리라고 자부합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다. 나노에 영감을 불어넣은 지휘자로, 자식 같은 자동차를 선보인 라탄 타타. 이제 나노는 혁신 대명사다. ‘나노베이션(nanovation)’

타타 명성이 어디서 왔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라탄 타타는 말한다. “내 후계자들이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가치를 잃고 청렴을 내팽개치고 윤리를 지키려들지 않는 기업들이 점점 늘는 흐름에, 타타 그룹이 휩쓸린다면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타타 그룹이 한 세기가 넘도록 꾸준히 자랄 수 있었던 까

닭은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라탄 타타는 지난 2012년 말, 스스로 매긴 일흔 다섯 살 정년 약속을 지키며 그룹 회장 자리에서 내려왔다. 손을 털고 떠나는 ‘원칙과 약속’에 바탕을 둔 참 경영자 뒷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 가슴이 따뜻했다.

우리 사람에게 등 돌리지 않아

인도에는 타지마할이 둘이 있다. 하나는 황제 사자한이 사랑하는 아내를 영원히 살게 하려는 소망을 담아 지은 능, 타지마할과 타타 그룹 설립자 잠셋지 타타가 세운 타지마할 호텔이다. 아라비아 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뭍바이 항구에 있는 타지마할 호텔, 겉모습은 인도 사라센 양식이며, 안은 붉은 빛 깔로 장식해 궁전과 같다. 모든 객실은 아라비아 해를 볼 수 있도록 설계해 차한 잔을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면 배를 탄 느낌이 들도록 했다. 1903년 12월 16일에 문을 연 타지마할 호텔은 인도 자존심이다. 까닭은 창립자 잠셋지 타타가 외국인 친구와 당시 뭍바이 으뜸가

는 호텔에 갔다가 ‘원주민’이기에 쫓겨나는 창피를 겪는다. 이때 잠셋지 타타는 내 반드시 세계 어디에 내보도 손색 없는 호텔을 세우겠다고 양다물었다. 그리고 1898년부터 5년, 긴 역사 끝에 이론 꿈 호텔 타지마할.

2008년 11월 26일 무장테러리스트들이 타지마할 호텔을 점거했다. 사흘이나 이어진 테러로 손님들과 종업원, 테러리스트 모두 170여 명이 죽고 300여 명이 다쳤다. 호텔 총지배인 강은 인질로 잡혀있던 아내와 아이들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흔들림 없이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직무를 마쳤다. 또 어떤 종업원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샴페인을 마시고 싶다는 손님에게 가져다 준 샴페인을 손님이 테이블에 놓인 물 컵에 샴페인을 따르려고 하자,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는 샴페인 잔을 가져다가 생애 마지막 잔이 될지도 모를 샴페인을 정성껏 서빙했다. 테러 사건이 마무리된 뒤 라탄 타타 회장이 여러분이 어떻게 아랑곳하

지 않고 의연하게 행동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종업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타지마할 호텔 손님들은 으뜸가는 서비스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라탄 타타회장은 이때 목숨을 잃은 직원 유족들에게 은퇴 나이인 60살까지 급여를 챙겨줬다. 게다가 유자녀 학비를 국내외 가리지 않고 모두 대주겠다고 약속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사람들(its own people)에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라며 라탄 타타회장은 보상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러면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하고 그룹 인사담당자에게 몇 번이나 묻고 또 물었다. 이익을 사회로 되돌리는 일은 혈액순환처럼 원칙이다. 몸



타타 그룹 회장 라탄 타타

에 피가 돌아야 사람이 살 수 있듯이 기업 사회 환원도 그와 같다. 어떤 사람들은 기업이 사회에 저야할 마땅한 책임을 추가 비용으로 여긴다. 그러나 우리 타타 그룹은 사회에 돌려야 할 책임을 토지나 전력, 원자재, 노동력과 마찬가지로 필수 비용으로 여긴다는 타타 그룹 사람들.

“타타 장학금은 내 삶과 직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77년부터 2002년까지 인도 대통령이었던 코체릴 라만 나라야난 말이다. 나라야난은 인도 케라라 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인도 외교부 임시직을 얻었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영국 유학을 떠나려고 1944년 타타 그룹회장인 J.R.D 타타에게 타타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편지를 고치고 고쳐 누더기가 되었다. 같은 방을 쓰던 친구에게 종이를 빌려달라니까 친구는 “지금은 전사인데다가 타타 그룹은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에게만 장학금을 중단 말이야. 뒷 땀에 시간 낭비를 해?”하고 퇴박을 놓으며 빌려주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누더기가 된 편지를 J.R.D 타타에게 보냈는데 연락이 왔다. 타타 장학금으로 영국 런던 정경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 저명한 학자인 헤럴드 래스키 문하에서 1등을 하자 래스키 교수는 당시 인도 수상이던 자와 할랄 네루에게 편지를 써주어 인도의 무부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정치가 길을 걷게 됐다.

자산 66퍼센트, 자선단체가

고등교육, 과학 연구 바탕에서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보았던 타타 그룹 설립자 잠셋지 타타는 19세기말 선뜻 자기 재산 절반을 내놓아 1898년부터 1911년까지 오랜 준비를 거쳐 영



타타 그룹 설립자 잠셋지 타타

국에도 없던 진보 과학 교육기관인 '인도 과학원'을 세운다. 인도 자와할랄 네루 수상은 잠셋지. 타타를

가리켜 '인 경제 기획원'이라고 했을 만큼 뚜렷한 나라관을 가진 잠셋지 뜻에 따라 타타 그룹은 생물·물리·화학·수학·컴퓨터과학과 과학 교육을 아우르는 '타타기초과학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회과학교육에 한몫을 하는 '타타사회과학연구소', 인도에서 가장 먼저 암을 연구한 '타타 암 연구치료센터', 예술을 보전하고 이어가는 '국립예술진흥원', 전 세계 자연과학, 첨단 기술과 종합학문을 연구하는 '국립첨단학문연구소'를 세워 나라 기반을 닦는데 앞장섰다.

타타 그룹 기치는 올바른 사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동이다. 2009~2010 회계연도에 매출 674억 달러를 올린 타타 그룹. 영국 브랜드 가치 평가기관인 <브랜드파이낸스>가 평가한 타타 그룹 브랜드 가치는 약 100억 달러로 '세계 100대 브랜드' 가운데 51위, 미국 <비즈니스위크>가 뽑은 '세계혁신기업' 25개 기업 가운데 13위, 미국 <레퓨테이션 연구소>가 가려 뽑은 '평판 좋은 글로벌

기업' 11위에 올랐다. 얻은 이익은 사회에 되돌려야 한다는 믿음으로, 자산 66퍼센트는 자선단체(타타트러스트, 타타재단)가 가지고 있어 타타 그룹이 돈을 많이 벌수록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간다. 재단과 타타 기업들이 사회발전부문에 지원하는 돈은 모든 타타 계열사 순이익 4퍼센트에 이른다.

저명한 인도 경영학 교수 드위젠드라 트리파시 박사는 "잠셋지 타타가 세상을 떠난 뒤 100년 동안 훌륭한 기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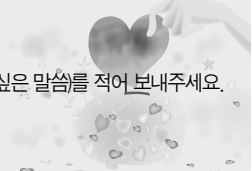
기업가가 여럿 나왔다. 그렇지만 인도 산업역사에서 어느 누구도 잠셋지를 넘어서지 못했다. 잠셋지는 날이 갈수록 빛난다. 그 까닭은 세 가지. 먼저 모든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사업을 구상해 단순히 이윤을 늘리는 목적을 두지 않고 인도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열망했다. 둘째 잠셋지는 사업 구조와 전략을 짜면서 관례를 뒤엎는 놀라운 독창성을 보였다. 셋째 잠셋지는 투자 대비 수익률보다 기업가치관과 윤리, 사랑을 보듬어야 한다고 내세웠다."

항기가 묻어나는 이야기를 나누어주세요.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 그리고 길상사 신도님 더 나아가 여러 독자님의 따뜻한 마음과 향기로운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터에서 생겨나는 소소한 이야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 가족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가슴이 뭉클한 감동의 이야기, 자연을 아끼면서 생태적인 삶을 실천하는 너만의 비결이나 수행과 신행 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느꼈던 내 마음 안의 깊은 충만함이나 내면의 깊은 이야기도 좋습니다.

- 원고를 보내주실 때는 본인의 소개(약력, 연락처, 주소, 전하고 싶은 말씀)를 적어 보내주세요. 원고 채택 시에는 귀한 책 한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 전자 우편 : clear94@hanmail.net



마음속에 남아있는 작은 친절

윤민재(회원)

지금 창 밖에는 장맛비가 즐기차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30도에 가까운 무더위가 한동안 이어져 조금은 지쳐 있었는데, 큰 피해 없이 메마른 대지에 촉촉한 단비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제 머릿속에 간직된 13년 전의 소중한 추억이 가끔 떠올라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아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흐르곤 하는데, 그 추억을 함께 나누고 싶어 글을 씁니다.

당시 20대 초반으로 군대를 갓 제대하고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동네의 조그마한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배달일은 처음이고 오토바이

운전 또한 익숙하지 않아 실수도 많이 했었는데, 손님이 주문한 음식 중 일부를 빠트리거나 번지수를 못 찾아 몇 차례나 빙빙 돌며 헤매기도 했습니다.

눈이 쌓인 겨울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차로에서 미끄러져 그릇통이 공중으로 떠오르면서 도로에 떨어지는 바람에 수십 개의 크고 작은 그릇들과 음식물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교차로를 뒤덮어 이수라장으로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그때는 창피해서 일어나지도 않고 도로에 가만히 누워 있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달한 그릇을 수거하러 가면 그릇이 신문지로 돌돌 말려있고 신문지 안에는

비닐봉지, 종이컵, 이쑤시개, 화장지 등이 뒤섞여 있거나, 그릇 안에 쓰레기와 국물을 가득 모아워서 쏟아질까 봐 예를 먹으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온 적도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비 때문에 시간에 쫓겨 그릇을 빨리 거둬들이기 위해 계단 위로 흠뻑 젖은 우의를 입고 빗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다세대주택 4층까지 뛰어 올라가 힘겹게 숨을 내시며 그릇을 거둬들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한참 동안 있었습니다.

이유는 깨끗하게 잘 닦여진 그릇 속에 노란색 메모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머리 위에서 푹푹 떨어지는 빗물은 분명 차가웠는데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따뜻했습니다. 매우 감사했으며 하루의 피

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답장을 하고 싶어 주변에 떨어진 전단지를 주워 전단지 뒷면에 ‘그릇 깨끗하게 닦아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쓰고 문 앞에 놓아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싶어 그릇을 품에 안고 터벅 터벅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쏟아지던 빗소리는 어느 클래식 음악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으며 주택가의 가로등마저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짜장면을 먹기 힘들어하면 랩을 벗겨 젓가락으로 비벼주고 가위로 살짝 잘라주고 오기도 했으며, 누군가가 길을 물어보면 가까운 거리는 목적지까지 오토바이로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런 저의 행동에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또한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힘들고 외로웠던 그 당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그분이 생각납니다. 행복하세요!

법정 스님! 잘 계신지요?
 어린왕자는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만나셨겠지요.
 이렇게 맑고 향기로운 도량에서
 스님의 맑은 정신을
 떠올려 볼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합니다.
 스님 계실 때 뵈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제 복이 그렇게까지
 아니었나봅니다.
 그래도 스님의 흔적이거나
 더듬을 수 있어 감개무량합니다.
 이 도량에서 제 마음을 맑히고,
 도량에 찾아오신 분들도 모두
 마음을 맑혀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젠가 무량한 세월이 지나
 제가 이 도량에 머물렀던 인연으로
 법정 스님을 뵈게 될 때
 부끄럽지 않도록요. 감사합니다.



‘산에는 꽃이 피네’
 이제야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은 알 듯 합니다.
 오늘 꿈속에서도 그리던 인연과
 여기 이곳에 왔습니다.
 따뜻한 햇볕, 바람, 나무향기
 그리고 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깨달음…….
 6월 어느 멋진 날

법정 스님 진영각이 개원된 후 스님의 맑은 향기를 찾아 오시면서 방명록(스님께 전하는 이야기)에도 많은 글을 남기고 가십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살짝 볼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뒷마루에 앉아 소소한 이야기를 담아놓고 가십니다. 소원도 있고 다짐도 있고 반성하는 글도 있습니다. 남겨주시는 이야기들이 스님께 꼭 전해지기를 바라며 그중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글을 골라 매월 소식지에 담아보려 합니다. - 편집자 주



중앙모임 (02-741-4696~7)

홈페이지 개편 마무리 안내

본 모임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본모임의 중앙모임 후원회원은 홈페이지 상에서 <후원내역>과 <기부금 영수증>을 바로 확인,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월간 맑고 향기롭게>소식지를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바로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모임의 활성화와 중앙모임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메인화면에 각 지역모임 활동소식이 노출되도록 하였으며, 지역모임별로 별도의 홈페이지를 두는 등의 여러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개편 전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신 분은 기존 가입하셨던 아이디는 동일하나, 비밀번호는 <c1111>로 일괄 처리되어 있으니, 수고스럽더라도 로그인하셔서 비밀번호를 수정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사용하시면서 느끼신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의 의견을 주시면 수렴하겠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후원내역 확인 및 기부금 영수증 출력을 위해서는 후원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웹 회원으로 가입해야 가능하며 기존 회원자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분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소중하게 보호 할 것이며 회원님의 후원내역은 국세청으로 등록되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법정스님의 글이 아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글 안내

인터넷상에서 법정스님의 글이 아니거나 출처가 불분명하여,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가 있어 사무국에서 공식적으로 바로잡으려 합니다.

1. 개를 잡아먹지 말자 : 1996년 9월호 '정법 세계'라는 잡지에 법정스님이 쓰신 글이라며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글이지만, 정법세계라는 잡지의 출처가 불분명하고(국립중앙도서관 및 학술정보원 전국도서 검색시스템에서 간행물 기록이 없음), 글의 내용, 서술 방식, 문체를 검토하였을 때 법정스님의 글이 아니므로 판단됩니다.

2. 여보게 친구, 부처를 찾는가? :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체 법정스님의 글로 유포되는 "여보게 친구, 부처를 찾는가?"는 스님의 저서에서 찾을 수 없으며, 문맥상의 내용이 스님의 글이라고 판단하기 불분명하다.

3. 귀한 인연이기를 : 이글은 인터넷에서 법정스님의 글이라고 많이 유포되어 있지만, 원



작자는 유혜정 시인입니다.

4.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지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 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을 난 당최 이해할 수 없다. : 스님의 사진과 함께 편집되어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글인데 출처가 불명확합니다. 스님의 법문이나 글에서 발견하지 못했으며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당신네 신에게 버림받았다'는 표현은 스님께서 생전 쓰신 표현이 아니며, 스님의 범종교적인 사상으로 보았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인터넷에는 법정스님의 글이 매우 많지만 그중에는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글이 유포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잘못 게재하고 또 다른 사람이 스크랩해서 유포하는 경우에는 원작자를 쉽게 찾을 수도 없으며, 오류를 제때에 바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법정스님께서서는 그동안 풀어 놓은 말뭉치를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으려 하니, 모든 출판물을 절판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상에는 여전히 스님의 글과 말씀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법문과 경전이 2,500여년이 흘렀지만 불멸의 진리로 변함없이 읽히고 배우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법정스님

의 말씀과 글은 더욱 큰 가르침으로 전해질 것이라 생각되며 단지 부탁을 드리자면 인터넷에 법정스님의 글을 게재할 때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 스님의 글이 바르게 전해질 수 있기를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저작권을 위반하거나 침해하는 경우가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법정스님 책 무단도용 제재

본모임은 법정스님의 유언에 따라 스님의 저작권을 승계하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신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정스님의 글과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하는 출판물의 난립을 규제할 예정입니다.

법정스님은 "생전 세상에 남긴 모든 글과 말을 절판하라"는 유언을 남기신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스님과 계약했던 출판사들이 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적극 협조하여 이례적으로 모든 저서를 절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절판된 스님의 저서가 재고라는 이름으로 소형 서점에서 판매되는가 하며, 스님의 말과 글을 무단으로 사용한 출판물이 난립하여 스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더욱 강력한 제재를 할 것입니다. 또한, 소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 등에서 선구입하여 판매중인 재고서적에 대하여 법적 제재는 할 수 없기에 판매중지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3년 '숲과 함께 공존하는 전통마을을 찾아서' 안내

7월 숲기행은 봉화 거촌리 고택마을과 9월 예정이었던 영주 무섬마을까지 함께 둘러볼 예정입니다. 오전에는 봉화 거촌리 마을에 들려 도암정, 쌍벽당과 함께 고택마을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내성천을 따라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영주 무섬마을을 찾아 숲과 공존하는 우리나라 전통마을을 보며 느끼며 공부할 예정입니다.

1. 일정 : 4월 ~ 11월 첫째 토요일

2. 답사지

- 7월 6일 : 봉화 고택마을, 영주 무섬마을
- 8월 3일 : 성주 한계 마을

3. 참가방법

- 참가신청 : 숲기행을 다녀온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 준비물 : 점심, 식수, 간식, 모자, 등산화 필수, 돋보기, 필기구 등
- 참가비 : 회원 25,000원 / 비회원 30,000원
- 입금처 : 외환은행 301-22-00270-1 / 예금주:(사)밝고 향기롭게

4. 주의사항

- 참가비 송금 후 불참할 경우 출발 5일 전 연락 시에만 1회에 한하여 이월 가능
- 출발 5일 전까지 전액 환급(송금수수료 본인 부담)해드리며, 출발 4일 전부터는 환급이 안되며, 연말 결식후원금으로 후원 처리됩니다.

- 신청 전화주실 때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여행자보험용)를 꼭 알려주시고, 1인당 최대 3인까지만 신청받습니다.

리뷰 재할용 리폼 활동 안내

요즘은 옷이나 소품에 대해서 각자의 개성, 창의, 디자인, 패션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새롭게 구매해 입는 것보다 예전에 입던 옷을 수선하여 개성에 맞춰 입는 풍토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 또한 생활 속에서 작게나마 실천하는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청바지, 한복 천,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녹색장터를 개최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연말에 불우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봉사자들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 하나 청정하게 생활하면 두루 온 세상이 청정해질 것이라 믿으며 매주 화요일 함께 모여 가방이며 앞치마 등을 디자인하고 재단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녹색 생활을 위해 재능(재단, 디자인)을 나눠줄 봉사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매주 목요일, 금요일 결식이웃 밀반찬 조리봉사 안내

본 모임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주변에 외롭고, 힘들게 사는 어르신, 장애인, 한 부모



가정 430여 가구에 밀반찬을 조리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치 않고 서로 웃어거리며 함께 하실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었지만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저희 모임에서 나눔을 실천해보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관심과 참여가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활동은 성북구 전 지역을 비롯하여 동대문구, 종로구, 노원구, 강서구 일대로 지원 대상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 남자 봉사자의 도움이 점점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조리장에 남자 봉사자가 3명만 남으면 조리장이 썩-썩 돌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수고도 조금 덜어줄 수 있고요, 함께하실 분은 언제라도 전화주세요.

전화 한 통화가 외로운 분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고독사'가 어느새 우리 삶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고독사의 문제는 그들이 죽을 때 외로웠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살아 있는 내내 외로웠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무연사회(無緣社會)란 사회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약화되고 인연(因緣)이 끊어진 사람들이 증가하는 사회를 말하는데요,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부패한 냄새로 자기 죽음을 세상에 알렸던 60세의 할아버지

의 사연을 들을 때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죠. 본 모임의 전화말벗 자원 활동은 6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무연시대에 아주 적절하고 중요한 활동이라 판단됩니다. 매주 한 통화의 안부 전화로 외로운 분들에게 희망을 나눠줄 봉사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재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후원금액 변동, 중단 시에도 사무국으로 전화주시면 간편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회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사업후원계좌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 후원계좌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문의 : ☎ 02.741-4696~7

7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발송/ 2일(화), 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밀반찬 조리 자원활동/매주 목-4,11,18,25일/금-5,19,26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물어도 좋을 일복 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

동/매주 월요일(1,8,15,22,29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나누기 등/ 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활동/둘째, 셋째 일요일(14,21일)/오전 9시30분~12시/청소년 봉사자

● 묘회원(치매노인 요양시설)/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활동/첫째 일요일(7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 활동가

● 진인노인 요양원/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둘째 일요일(14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매월 셋째 목요일(18일)/오후 2시/세계일화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3,10,17,24일 오후 1시 30분(삼푸, 로션, 에센스, 한방비누)/세계일화실, 비누는 맑고 조리장/선착순 7~8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매주 화요일 의류재활용 리폼/세계일화실

● 숲기행/6일/봉화 거촌리 고택마을

● 녹색나눔장터/28일(일)/길상사 경내(변경될 수 있음)



경남모임 (055-266-0170)

7월 정기 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활동-매월 셋째 주 수요일/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활동-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14시/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봄림청소녀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5시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재현이네와 10가구)-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쌀, 밀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질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구입문의 ☎(055)266-0170
-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만들기 수강 신청하세요. 매월 첫째주 / 셋째주 수요일 오후1시

30분/재료비 22,000(수강료 없음)/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대구모임 (053-753-8883)

7월 정기 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밀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수시모집
 - 토요경로급식 및 웃음교실/매주 토요일/9시부터 음식조리, 2시 마무리
 - 룸비니동산(장애인아동 보호시설) 자원봉사 활동/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매월 셋째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식사케어,빨래정리,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매월 첫째 화요일 11시부터
 - 아름다운가게 되살림터 봉사/매주 목요일 오전10시 ~ 12시
 - 운영위원회의/매월 둘째 금요일 오후 7시 30분
-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7월 정기 활동 안내

- 장애우 이동목욕
매주 수요일/0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르신 목욕
매주 목요일/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매주 목요일/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매주 금요일/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인 이동목욕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09:30~13:3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매월 1,3주 금요일/09:30~12:00
 - 매달 첫 번째 토요일-물운대 종합사회복지관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지역정화활동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달 네 번째 금, 토요일-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7월 정기 활동 안내

- 광주모임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80

개의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으며, 점심공양나눔의 집을 신설하여 저소득층과 고령층 대상으로 하루 100명분, 일천원의 식대로 12시에서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독서모임 안내 / 7월 10일(30회)
- 도서 : 맑고 향기롭게/주제 : 홀로사는 즐거움, 봄은 가도 꽃은 남고/토론 : 자연에 대한 우리의식(영혼과 자연)
- 6월 11일(수) 운영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자비의 도시락, 점심공양나눔, 독서모임, 금강경독송회, 자원봉사자 워크샵 등 여러 현황과 회원수 증대에 대하여 논의 하였습니다.
- 광주모임이 광주광역시 동구자원봉사센터 1365 자원봉사활동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소중한 도움이 손길이 수시로 필요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대전모임 (042)823-0770

- 충남대 대불련 후원 / 자혜원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지역불교문화행사 동참
-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사)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다라니기도

- 일시 : 7월6일 (오후8시~10시)
- 장소 :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 일시 : 7월13일 (오후9시~다음날오전4시)
- 장소 : 길상선원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7월13일 (오후8시30분~다음날오전 4시까지)
 - 장소 : 극락전
- 삼천배에 동참하신 불자님께서서는 좌복 곁천을 빨아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2013년 여름 선 수련회 일정

<길상사-맑고 향기롭게 여름 선 수련회>는 법정스님께서 발족하신 시민모임'맑고 향기롭게'의 마음 수행 활동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길상사 템플스테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묵언과 참선을 통해, 스스로를 가만히 지켜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 수련일정/참가비/모집인원

- 1차: 7월 26일(금) ~ 7월 27일(토)/어린이[저학년 1~3학년]/1박2일/4만원/70명

- 2차: 7월 29일(월) ~ 7월 31일(수)/어린이[고학년 4~6학년]/2박3일/6만원/70명
- 3차: 8월 1일(목) ~ 8월 4일(일)/일반인/3박4일/15만원/70명
- 4차: 8월 5일(월) ~ 8월 7일(수)/청소년/2박3일/8만원/70명
- 5차: 8월 8일(목) ~ 8월 11일(일)/일반인/3박4일/15만원/70명

백중 아미타 90일 기도

지난 5월 24일 하안거 결제와 동시에 백중 아미타 90일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백중 초재는 7월 10일 시작되어 8월 21일 백중 회향 때오니 선망 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위한 백중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 공덕 지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안내

백중 아미타 90일 기도 기간 동안 극락전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봉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친견법회를 마치고 영구 보관되기에 다시는 친견할 수 없게 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꼭 동참하시어 무량가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일주문 단청 불사 안내

일주문 단청 불사가 원만히 회향 되었습니다. 길상사의 맑고 향기로운을 담아낸 일주문 단청 불사에 동참하신 불자님들께 감사드리며 단청불사 접수는 계속되오니 불사의 소중한 인연 맺고자 하시는 분들은 중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8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8월 3일	오후 8시	극락전
초하루	8월 7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백중5재			
시민선방 철야정진	8월10일	오후 9시	길상선원
삼천배 철야정진	8월10일	오후 8시30분	극락전
백중6재	8월14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하안거해제법회	8월21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백중회향			
추계관음기도입재	8월22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지장재일	8월24일	오전 9시50분	지장전
관음재일	8월30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50분/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50분/저녁 7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9시50분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적묵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거사님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30분	설법전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합창단 정기법회	매월 넷째 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새신도교육	매 주	오후 1시20분	소강당